

익산시 용안생태습지에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정원 지정 용역 최종 보고회

치유·예술 등 5가지 테마공원 제안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

익산시가 용안생태습지를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최근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용안생태습지 정원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에서는 용안생태습지와 체류형 프로그램 접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습지를 1000년 역사를 지닌 왕도 정원, 빛과 노을이 있는 치유 정원, 바람과 습지가 있는 생태 정원, 농업과 상생하는 키친 정원,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예술 정원 등 5가지 정원 테마가 제안됐다.

특히 키친 정원에 관광 요소를 결합해 체류형 공

간으로의 조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공유했다.

시는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용안생태습지 관광 활성화와 도내 최초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 2022년부터 3년간 정원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지방 정원을 운영한 뒤 3년간의 운영실적을 모아 국가정원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지방정원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후 산림청이 승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습지는 국토교통부가 2012년 성당면과 용안면 일원에 67ha 규모로 조성했으며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용안생태습지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습지로 이곳에 정원 요소가 더해진다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정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해경 수상레저 소통방 노하우 공유 해양안전 기여

군산해양경찰서가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상레저활동 소통방'이 해양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아날로그 방식(대면)에서 디지털 방식(비대면)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4월 수상레저활동 소통방을 개설했다.

소통방은 ▲수상레저 활동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사고를 전파하고 대응 ▲안전 노하우 공유 ▲신고제 ▲해경과의 실시간 Q&A ▲해양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에 레저보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통방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 인근에 있던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구조되기도 했다.

이 소통방(open.kakao.com/o/gMSrSg6b)은 현재 321명이 참여하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별 고창군 신기술 시범사업

고창군이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별 신기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별 신기술 시범사업'은 소의 꼬리털을 이용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우량한 암소를 조기에 선별한다.

이를 통해 송아지 출하 월령을 낮추고 경영비 절감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고창군 한우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함께 900마리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진행 중이다.

또 소의 장내 소화효율과 저장성을 높여 우수한 등급의 개체를 육성하기 위해 미생물 배양기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고창한우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한 고창에서 사육되며 혈통, 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전국 최고 품질로 평가받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이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별 신기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 왕궁리유적전시관 비대면 역사 여행

익산 왕궁리유적전시관내에 있는 5층석탑 전경. 왕궁리유적전시관은 3일부터 선착순으로 어린이 30명을 모집해 6일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익산시 제공>

남원시 청정 지리산 산나물 '곤달비' 특화 육성 나선다

나물산업 육성 간담회

대량생산 기술 개발 등 논의

남원시가 청정 지리산 권역을 기반으로 나물 특화산업에 나선다. 품종은 '곤달비' 나물이다.

곤달비는 타 품종에 비해 연작 피해가 적고, 생산량이 많아 고소득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요리·식재료 개발 및 약리적(항당뇨, 항비만 등)·미용적(주름개선, 멜라닌 생성저해 등) 기능성까지 확인돼 부가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화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남원시는 최근 '2022년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사업' 간담회를 갖고 남원 곤달비를 특화·육성시킬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남원 '곤달비'의 특성 및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재배농가 및 가공·유통조직 관계자들은 곤달



곤달비를 활용한 농산품.

비 활용의 산업화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실무적 협의도 실시했다.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사업'은 전북도가 내년 부터 2년간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1시·군 1특화나

물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공식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3~5년간 총 20억원이 투입된다. 나물생산 기반조성, 가공시설, 유통조직 체계화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유통·홍보마케팅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나물과 마을 부존자원을 활용해 활동체험, 농가 맛집, 농촌민박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나물 특화마을' 조성도 가능하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44개 농가가 곤달비를 생산하고 있다. 남원시곤달비연구회(회장 김천갑)도 만들어져 있다.

류흥성 남원시 경제농정국장장은 "전북도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은 나물이 가지는 건강함과 맛이 남원의 청정한 이미지와 결부돼 6차 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성공모델로 완성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에 적극 대응,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2억4000만원 확보

순창읍의 중앙로가 지중화사업에 이어 간판개선사업까지 추진돼 쾌적한 도심환경으로 변모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읍 중앙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4억원 중 국비 2억4000만원이 확보됐다.

간판 교체대상은 순창읍 경천교부터 중앙로 KT순창지점까지 300m 구간 내에 55개 업소 간판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벽면과 돌출, 창문 등에 부착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어지럽히던 광고물 152개가 말끔히 정리될 예정이다.

특히 '재밌고 친근한 거리'라는 디자인 컨셉을 업소 특성에 맞게 적용, 업소당 1개 간판은 원칙적으로 재설치될 예정이다.

군은 중앙로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고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이어 간판개선사업까지 진행되면서 위축된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 연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을 거쳐 3월부터 본격화돼 연말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의 관문인 순창읍 중앙로에 간판개선사업이 추진되면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순창만의 특색을 담아내고 지역 상권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7년까지 '6개년 간판개선사업 중기계획'을 세워 순창읍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